

95th

3.8

여성의 날 기념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간 소통의 확장을 위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행패!

3월 7일 늦은 3시
연세대학교에서

95주년 여성의 날 기념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3월 7일 행사 일정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4:00	행사 준비	부스 설치, 행사 준비	민주광장
15:00	사전 행사	참가 신청, 참가비 납부, 자료집 배포, 명찰 만들기 소망 달기, 피켓 만들기	민주광장 본부 부스
16:30	사전행사 야외 발대식	오프닝 : 퍼포먼스(나비) 소망 달기 & 소망 보기 단위/개인 소개 노래 공연	민주광장
17:30	저녁식사 및 휴식	맛나섬 부스 둘러보기	
18:30	기조발제		1학생회의실
19:00	단위별 준비 프로그램	이대여위 : 서대문구 지역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도서관개방 프로젝트 연대총여 : 반성폭력 운동사 관악여모 : 세련된 마초들과 어떻게 싸 울 것인가?(역할극) 송실총여 : ?	1학생회의실
21:30	조나누기 게임, 간식배분	이름을 먼저 맞춘 순으로 조를 배정하 고, 조별로 간식을 차등 지급합니다.	1학생회의실
22:00	연대체 발제	여성주의 단체들의 연대모임을 고민합 니다	1학생회의실
23:00~	심야 영화보기	양초와 향이 있는	1학생회의실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간 소통의 확장을 위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행패!

올해도 역시

수도권 지역 대학 중심성과

소위 운동의 주류 캠퍼스 중심성을

어떻게 하지 못한 채

행사 당일을 맞습니다.

네트워크를 고민하겠다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네트워크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느슨했던 연결이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소통의 확장을 비전으로 제시하려고는 했지만

경험과 언어의 갭까지 다름들이

그것들 그대로 풀려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었을 때

그렇게 소통의 기본 전제조차 갖춰지지 못했을 때

심화, 확장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어불성설임에 분명하고

우리는 결국 이름값도 못하는 일을 벌인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급히 내 건 간판을

부리나케 내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니

민망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강렬한 것이지요.

손에 짚을 숫자의 학교들이 모여서 쿵쾅거리는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매년 무언가 공동의 기회를 하고자 할 때마다

똑같은 문제에 부딪치면서

그런 잘못을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다시 한 번 되물게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당당하게 '행패!' 하고 외치는 것이

공문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다짐으로 자료집을 열고

여기 오신 여러분을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조 발제글



그동안 <3.8 세계여성의 날>은 세계 각 곳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를 이야기하는 장으로 자리 매김 해 왔다. 그 중 한국에서는 여성노조가 중심이 된 자리가 꾸준히 꾸려져 왔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모여 연대하고 있는 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이 주된 흐름을 만들어 왔다. 최근 5년 간 여연에서는 여성고용 안정, 여성할당제, 보육의 공공성 등의 이야기를 해왔다. 2001년 이후에서야 '성매매 방지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연 중심의 요구와 활동에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관한 문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성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도 소외당하는 여성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다. 여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이 이성애자이고 기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 될 계획이 있는 여성, 그리고 비장애인이며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여성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 3.8 여성의 날은 분명 여성의 독자적 요구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주의 여성들에만 해당하는 요구를 여성 전체의 요구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고도 오만한 이야기이다. 소위 '주류 여성운동'이 그 원래의 목적을 잊은 채 보수적인 '제도권 여성운동'으로 가는 것도 반가운 일일 수는 없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2001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차이가 힘이 되는 여성연대'가 만들어졌고, 2002년에는 끼리끼리, 장애여성공감,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에서 무지개 시위를 계획하기도 했다. 대학 안에서도 여성노동권 쟁취를 위한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인 땀줄굴리기, 여러 학생회를 비롯한 전여대협, 전학협 여성위원회가 주축이 된 3.8 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등의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리고 2003년, 2002년 활동들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 예년과는 약간은 다른 내용들로 3.8 기념행사들이 꾸려지고 있다. 이 중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대학내 여성주의자들의 또 다른 판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대학내 여성운동단위의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 간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이다. 이 연대는 그 동안의 3.8 여성의 날 행사들이 단일한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왔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려진 모임이다.

사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으로 투쟁하기에 각 학교의 사정은 너무 다르다. 각 캠퍼스의 여성문제 인식차이, 담론이 확장되어온 역사 그리고 돌발적으로 생기는 시급한 사안 등에 따라 학교 안의 상황과 밖에서 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진다. 2002년 여성연대한판을 마치며 '가깝고도 먼' 각 캠퍼스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축적물을 나누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3.8 여성의 날에 모여 "연대"라는 화두를 꺼내는 이유는 다만 운동 과정에 대한 팀이나 자료집의 나눔을 나누는 것에만 있지 않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들이 많았다.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그러한 문제들이다. 또 한양대 여성위원회 역시 총학생회와 학생정치조직사이에서 일어나는 세력다툼 때문에 총학생회의 억압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학내에서 고립되어있는 상황이다. 학내의 사정을 알리고 공동의 투쟁으로 만들어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단순한 힘자랑의 차원이 아닌 어떤 절실함이다. 2000년 여성연대한판 자료집을 보면 여러 여성운동 단위에서 "여성노동"이라는 이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과 그로 인한 자신 없음을 토로한다. 여성노동이라는 이슈뿐 아니라 각 캠퍼스에서 활발하게 담론이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역시 이런 자신감 없음이 존재한다. 기존에 일어나지 않았던 담론을 생산하는 것은 분명 한 단위에서만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고민하는 여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고 고민의 씨앗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열린 3.8 행사는 얼마간의 여성문제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 내는 대신 여전히 '변방'에 남아있는 많은 문제들을 더욱더 '변방'으로 밀어냈다는 아쉬움이 있다. 여성운동이 거대해지고 조직화된다는 것이 일면 고무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몸집이 커진 나머지 '중앙조직'에서 내려오는 사안을 중심으로 운동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두려워될 것이다. 대학 내 학생운동 단위와 구분되어 독자적 활동을 해야하는 여성운동 단위로서의 의미가 흐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간 압축적이고 단발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보다 대학 내에서 여성운동을 하는 단위의 독자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그 고민은 더 큰 단위에 기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특정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은 점차 '일반론'이 되어가지만 그 '일반론'적 특성으로 힘을 잃어 간다. 학내 여성 단위는 점차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단위의 재생산마저 힘들어진 상황에서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여성 단위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것 같다. "단위간 네트워크 강화와 단위간 소통의 확장"이라니. 기창하지 않은가. 그러나 실상은 더 이상 고립될 수 없다는 피로감을 지닌 여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지고 산을 올라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와 소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다.

★☆☆단위별 준비 프로그램

1. 이대 여성위원회 편~

OLIVER 올리버(Open Library with her) - 지역여성과 함께하는 대학 도서관 만들기 운동

- 이대여성위원회원호 1 반작

1. 생각의 시작은 조금 다른 곳이다.

작년, 그러니까 2002년 총학생회 선거기간에 그림자 선본을 고민하던 때, 우리의 고민은 이화인에 대한 것이었다. 금혼 학칙과 도서관 제한 등 이화의 여성정책은 '이화의 딸들'을 보호하는(?)데 주력한 나머지 '가부장적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화의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은 11시 주변이 되면 밤을 셀 것인지 '꽃겨울'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일단 밤을 새기로 하면 밖에서 문이 잠기기 때문에 도서관 밖으로는 다음날 아침까지 나갈 수 없다.)

금혼 학칙과 도서관 제한 폐지 이후의 상에 대해 생각하던 중 탁아소, 수유시설을 비롯한 컴퓨터, 기혼여성을 위한 전문적 상담소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한 시설들을 위해서는 현재 학내에 있는 공간만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전문적인 공간의 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지역여성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지역여성에 관한 지극히 소극적인 생각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곧 지역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학내의 공간이 과연 탁아소나 컴퓨터등의 공간에만 국한되어야 할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대학이 지역여성을 고민하는 공간은 단지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지역여성'에 대한 배려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대학 전체, 특히 대학이 상징하는 정보와 지식, 즉 도서관의 자료가 공유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던지 모른다. 틈만 나면 '여성주의의 메카'임을 자처하는 이화여대에는 사실 '등록금을 내지 않는 여성'인 지역여성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던 것이다.

2. '자매들'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학기가 끝나고 학내 단위인 '퍼니스타'에서 연대 제안이 왔다. 공공롭게도 그것은 '도서관 개방 프로젝트'였다. 나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일이 아주 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연대라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 왜 지역'여성'인가.

처음 '퍼니스타'에서 제안한 내용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여성위원회가 고민하던 도서관 개방의 대상이 지역여성이었다는 점이었다. 처음 '퍼니스타'에서 제기한 문제는 왜 지역남성을 '배제'해야하는가였다. '지역주민'이 아닌 '지역여성'으로의 합의를 위해 우리는 약 서너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그 때마다 여위는 왜 지역여성이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처음 제기된 질문은 이화가 여대이기 때문에 남성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인가, 였다. 대답은 '아니다'인 동시에 '그렇다'이다. 우선 이화가 여대라는 이유로 모든 남성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니다'. 그러나 이화는 여성공간이다. 도서관 개방의 대상이 '지역여성'인 이유는 이화가 '여대'이며 '여성공간'이어야하는 이유와 같다는 점에서 '그렇다'.¹⁾

1) '여성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토마의 글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줄이기로 한다.

J교수님은 여자 남자를 구분해 놓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 한다. 진중권씨는 여대가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여자 남자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대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대에 오면 모든 걸 성폭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오고싶지 않다고도 한다. 총학은 남학생들과 늦게까지 일을 하며 이제 이화의 성역이 깨지는 것 같아 기쁘단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있는 나는 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단 한번도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문화관 앞 작은 숲에는 나무 의자가 있다.

의자 위에 남자가 누워있다.

비키라고 말한다.

우리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1호선 지하철에는 파란 의자가 있다.

의자에 남자가 누워있다.

방학역에는 서울대가 없다.

방학역에는 서울대역에서 내리지 못해 화가 난 남자가 있다.

무심코 여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 걸리적이려도 참는 게 낫겠다.

이 골목을 돌면 슈퍼가 나와야한다.

바다에 남자가 누워있다.

이런데서 주무시면 일어죽어요.

깜깜한 밤

나는 거의 유일한 여성공간인 곳에서조차 남자들의 시선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들에 의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싫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읽으려 할 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고 도서관 앞 계단에서 햇빛을 쬔 채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불필요한 '제립'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솔직히 말하자. 나는 학내에서까지 남자들이 돌아다니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페니스타'를 설득할 만한 구체적 '논리'들을 찾아야만 했다. 지역여성이 남성에 비해 얼마나 정보 접근에 불리한가, 어느 공간에서 ID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어머니의 경우 자기자신만을 위한 투자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얼마나 인식하시던가, 실제로 기혼 여성이 가정을 위해 쓰지 않는 돈은 낭비라는 개념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나, 지역여성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도서관은 어떠한가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여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첫단계로서 '페니스타'에서 제안한 세미나의 상과 우리의 세미나가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첫 세미나가 열리기도 전에 그 차이는 확인되었다. 커리를 올리자는 말에 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내가 발제하고 싶은 내용과 참고할 서적 목록을 제시했고 그것은 곧 나의 소박한 의도를 벗어났다. 곧이어 커리 선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리플이 달렸고 여위에서 '페니스타'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커리를 정한 셈이 되어버렸다. '페니스타'에서 제안한 세미나는 공동으로 검토한 커리를 정해 함께 읽고 각자 맡은 책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형식이었던 것이다. 나는 사과와 변명이 담긴 글을 올렸고 각자 단위에서 커리를

사회대와 도서관 사이에는 큰 숲이 있다.
호적한 숲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게 더 멋진 숲이다.
마침 가을이라도 되어주면 그 나무.. 그 냄새..

여기 큰 길에서부터 집에 가려면 골목이 두 개다.
소름끼치는 골목을 향해 발바닥이 움직인다.
가로등은 왜 저렇게 띄엄띄엄 세워놓았나.
마침 노상방뇨하는 놈이라도 있으면 그 모습.. 그 냄새..

거대한 남성 공간에서 여성과 남성의 아름다운"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지 못하겠다. 이대에 공대가 있는 건 자원낭비라는 Y대의 익명게시판. 겨울 내 움츠른 물건을 새우고 싶다는 H대 단체미팅제안 편지, 이대도 숙제도 우리 것이라는 K대 집단 성폭력, 선정적인 포즈의 여성 사진에 좋아요 오퍼라는 말풍선을 단 S대 단체미팅제안 엽서, 여대를 주제로 하여 쏟아지는 포르노... 그들은 여성이 여성의 교육을 받고 여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자신의 기득권을 재확인하고 싶어한다. 여성 공간이 사라진다면 이화를 향한 이러한 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을 여성 공간 바깥에서 만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올려보자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페니스타'는 <신화과의 상상력>류의 커리를 다량 제시했고 여위는 이번 일에 관해 텍스트로 참고할 만한 서적을 찾지 못했다. 결국 여위는 언제나 책에서 보고 배워서 운동했나,며 자연스럽게 커리를 직접 만들자는 무시무시한 결론을 내렸다.

드디어 첫 세미나. '페니스타'에서 읽어온 책의 요약 발표가 끝났고 나는 여위가 생각해 본 커리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우선 왜 지역여성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운동을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실제 지역여성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지역여성이 바라는 대학 혹은 대학 도서관의 모습을 정리해보는 것이었다. 이것은 설문조사라는 요즘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무식한 방법까지 감내하기로 '결의'한 여위 나름의 비장한 결정이었던 것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마디로 반응은 영 땡,이었다. 자신들과 이화인들이 납득할 만한, 지역여성이 지역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여성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운동에 관한 선행 자료가 없다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것이 처음 안에서 고민으로 싹트고 발전되어 왔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정작 도서관 개방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할 지역여성의 목소리보다 더 '전문적이며' '납득할 만한' '논리'가 또 있을까. 또한 상대적 피해자로서가 아닌 지역여성 그 자체만으로 고민의 출발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나의 문제제기는 그전에 '지역주민'을 '지역여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했던 '논리를 뒤집는' 이야기로 받아들인 '페니스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나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문제는 커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3) 중요한 것은 고민의 시작이다.

위에서는 편의상 '페니스타'와 '여성위원회'등의 이름으로 분리해서 언급했지만 사실 도서관 개방 운동은 올리버라는 이름 아래 묶인 프로젝트로 준비되었다. 앞의 내용에서 언급한 연대에 있어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페니스타'에서 준비한 타학교의 현황이나 사업 구상 자료들은 조곤조곤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접근하는 방향이 달랐다. 내 생각이 맞다면 '페니스타'에서는 '돈을 내는 대학생'에 비해 소외되는 '돈을 내지 않는 지역주민 중에서 남성에 비해 더 소외되는 여성'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반면 여성공간에서 지역여성을 고민함으로써 진정한 여성공간의 의미를 획득해야한다는 것이 내 생각의 출발이었다. 대학문을 개방하고 지역여성이 대학생들과 다름없이 책을 읽고 논문을 대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공간을 통해 지역여성이 또 지역여성과 학생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중요했다.

다만 나는 연대의 출발에서 좀 더 분명히 내 고민의 시작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 했어야 했다. '페니스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접근에

열악한 환경을 지닌, 말하자면 '더 소외된 계층'으로서의 여성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잘못이다. 그것은 자칫 지역여성을 고민해야하는 이유와 도서관 개방이라는 실질적 운동 앞에서 그 본말이 전도될 위험을 갖고 있는 위험한 논리였다.

3. 다시, OLIVER

방학이 거의 지나갈 무렵 '페니스타'에서 공문이 왔다. 올리버의 형식을 유지하되 각자 고민을 진행시키고 필요할 때 다시 연대하자, 불감청연정 고소원이었던 내용이었다. 아직 공문 이후의 만남을 갖지는 못했다. 3/8 여성의 날이 지나고 만나기로 한 자리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이 오고갈 것 같다. 실무적인 논의와 자세한 진행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기회를 통해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지더라도 생각의 출발이 다른 단위들이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당장 올리버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생활도서관을 먼저 개방해서 실험기간을 갖는다는 안이 계획 중인데 이 역시 생활도서관과의 적극적 연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생활도서관의 개방은 단순히 중앙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있어서의 과도기적 역할이 아니라 영화상영이나 강연회 등등을 통해 지역여성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에겐 오히려 더욱 매력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여성과 도서관. 어쩌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뒤늦은 고민 앞에서 나는 때로 막막해진다. 학교와 사회의 지지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지역여성과 대학 안의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 선례가 필요하다면 지금 만들어야 한다. 이번 3/7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모임에서 이 막막함을 함께 나누어 줄 자매들에게 백만번의 포옹을 보낸다.

2) 고대도서관 프로젝트 팀에서는 생활도서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고 한다.

II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편~

연세대 반성폭력 운동사

1. 1996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1996년 8월 소위 '한총련 사태' 발생시, '연행된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PC 통신에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사태 진압과정에서 전경들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었다. 이후 9개 학교의 여성운동 단위들이 연대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결성되었고, 학내에서는 여성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자보 등을 통해 공론화되었으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 고발 내용의 기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 당시 국회의 소속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자리에서 성폭력을 당했던 여학생들의 증언을 보고하면서 사건의 수사과 관련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1997년 여성연대회의 결성

97년 3월 31일 공대위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규탄 토론회-막 만지는 경찰, 군대가 창녀를 원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 학교 여성운동 단위들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응하면서 겪었던 여러 한계와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고,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의해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가 구성되었다. 여성연대회의에는 연세대 총여학생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영남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등 18개 대학의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등 여성운동 단위들이 참여하여 대학 내 성폭력 사례와 반성폭력 운동에 관한 자료를 공유 및 축적하였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운동을 벌여나갔다.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여성연대회의를 빼놓고서는 서술할 수 없을 정도로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주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1997~1999년 학내에서의 학칙제정운동

1997년 말에는 신학과 김모 교수가 교양필수 과목인 '현대인과 기독교' 시간에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은 것이 수업을 수강하는 한 학생에 의해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로 신고되었다. 신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이 사건을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론화하였고 당사자인 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학내에서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개되고 공식적인 사과가 요구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최초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당사자인 김모 교수는 결국 수업시간에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한다.

1997년 말에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1998년 당선된 10대 총여학생회는 학칙 제정과 성폭력 진담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여성연대회의와 함께 성폭력 유형과 사례, 성의식,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998년 5월 14일 이화여대 중강당에서 열린 여성연대회의에서 주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하였다.

모반과 beyond 등의 여성자치단체들도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운동을 벌여나갔다. 여성자치단체들은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 제정을 제안하였고 성폭력 사례를 수집 및 공개하였으며 단대 내에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모반은 1999년 8월 반성폭력 학교를 개최하였다.

4. 2000년 학칙 제정

1999년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뿐만 아니라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시정 대상기관을 민간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성폭력의 개념, 특히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고려한 성폭력 개념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명문화되었으며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가 명시됨으로써 학내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학내에서도 여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2000년(정확히는 1999년 말)부터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등 반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2대 총여학생회에서는 학내 여성자치단체와 단위 학생회 및 관심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이하 연성뿌연)'를 제안하였다. 연성뿌연은 학칙제정운동의 흐름을 만

들어 가면서 새터 기간의 성폭력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가안에서 성폭력의 예방과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조치를 심의 및 의결하는 기관인 성폭력위원회(가)에 학생이 참여할 경우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총여학생회에서는 학칙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칙제정의 전과정을 학생, 교수, 교직원 등이 함께 논의하고 참여하는 학칙제정위원회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417 연세 학생총회의 특별요구안으로 제출되었다. 그와 동시에 연성뿌연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학칙제정과정에 학생이 교수, 교직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확인하였다. 또한 교양학교 개회와 유인물, 자보 등을 통한 선전 작업을 통해 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학생사회 내에서 합의하는 과정을 계속해 냈다.

이후의 교육투쟁 과정에서 본관완전점거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세학생총회에서 결의된 5대 요구안과 함께 성폭력학칙제정위원회 건설이 특별요구안으로 채택,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학내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하는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속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한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교수와 학생대표 각 4인, 교직원대표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초에 첫 회의를 가졌다.

연성뿌연에서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6월 1일 '학생이 중심되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세인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연세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수와 학생간의 성폭력부터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학생과 학생간의 성폭력 사례들을 공개했다. 결국 2000년 10월, 학칙이 제정되었다.

5. 2001년~2002년 반성폭력 운동의 확산과 안정기?

2001년도와 2002년도를 지나면서 '새터 내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행이 되고, 내규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아져서(내규가 있다라는 사실만-) 내규가 안정적으로 시행된 면이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력이라는 것이 대중이라도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며,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 왜 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 을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2001년도 단대 학생회장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연성뿌연이 결성된 것이나, 마초맨과 응원단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성폭력 운동의 확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연성뿌연에 많은 단대들이 소극적으로 혹은 비협조적으로 참여한 부분이나, 반성폭력에 대한 고민을 각 학생회에서 가져가려 하지 않음을 볼 때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의 대중화(?)가 이상하게 이루어지면서 성폭력의 개념을 이상하게 사용하여 오히려 여성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성교육 행사를 보고 기분이 나쁜 남학생들 - 그들의 행동양식은 부산대에서 콘돔 서약식을 할 때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것이다 - 이 성교육을 성폭력이라 명명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6. 2003년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3년 3년째 시행이 되었던 새터 내규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규에 대한 보다 강화된 교양을 진행하였다. 강화되었다함은 더 이상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주의자들이 반성폭력 운동을 모두 짊어지고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보다 단대학생회 및 과반학생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연성투연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며, 단대별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을 5월 중으로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글

강김정임, 「연세대는 성폭력 안전지대?」, 「연세대 내의 반성폭력 운동과 반성폭력 학칙 제정」

12대 총여학생회, 「학생이 중심되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세인 공청회」 자료집

윤,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어디까지 어떻게 왔나」

무엇이 해결인가

- 비대위의 구성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 소속 집단의 반성폭력 교양을 하러 들어갔을 때, 내게 들어온 질문이었다. 무엇이 해결인가요?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해결인가요? 물론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처벌과 단죄(?)가 아니라 대화로서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 큰 고민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해결'의 문제이다.

2002년도 무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어찌 수치화 시켜서 말할 수 있으리오. 이 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해결이 된 사건이 3건이 있었고, 학칙에 의해서 해결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다. 나름대로 잘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건들까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어렵게 어렵게 가해자의 사과문을 받아내고, 또 어렵게 어렵게 설득해내어서 설명공개 사과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 이후 잘되면 가해자 재교육과 가해자 소속 단위의 교양. 이 것이 전부이다. 사건의 공론화가 성폭력에 찌든 학내 분위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현실. 공론화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 설명공개 사과 대자보 자체에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는 평온한 학내 상황에서 '사건 해결'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이나.

가해자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상황에서 썩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사과문'을 받아 냈다는 것. 그리고 그 사과문과 성폭력 사실을 학내에 공개하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과정이다. 대부분 이 과정까지 이르면 비대위는 해산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가. 피해자의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니었던가. 설명공개 사과 대자보가 부착되어도 온전히(?) 혹은 떼땀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자. 물론 가해자는 숨어서 죽어서 지내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가해자를 100m전방에서 발견해도 도망 가버리는, 마주치기조차 싫은, 그래서 가해자의 생활공간(?)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에 비해 너무 상반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사건 해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실을 끊임없이 떠올려야 하고, 2차 3차 피해를 끊임없이 당해야하며,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위해 정신적인 피해를 감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사건이 공론화 되어서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서인 것이다. 공식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이 성폭력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보상을 받고자 함이며, 다시는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러한 피해자를 지원해주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비대위는 가해자에게 가해 사실 자체를 인정 시키는 데, 그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데에, 그리고 그 가해 사실에 대해 사과문을 받아 내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소모하게 된다.

사과문이 나온 게 어디야... 사과문이 나오고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 감사(?)할 만큼 가해자들은 온갖 수를 써서 빼팅기고, 엉뚱한 곳에 사과하고, 변명을 사과라고 우기고, 심지어 비대위를 협박한다. 피해자 포지션에 서게 되는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는 비대위원들의 경우 사건 해결 과정 자체가 무수한 2차 3차 성폭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대체 피해자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단지사건이 설명으로 공개됨에 따라서 잠재적인 피해자는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술한 성폭력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귀찮게(?)함으로 해서 진정 자신이 한 잘못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앞으로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ITT 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성폭력 사건 해결이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모두 보상이 될 수 없음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반성폭력 운동, 총여학생회만의 몫인가? -반성폭력 운동이 여성운동단위에게 집중되는 현실에 대하여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반성폭력 학칙 제정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당면 과제의 하나로 떠올랐다.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반성폭력 문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폭력 학칙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로그인 연세총여' 선거운동본부가 제12대 총여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물론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 이전부터 여성운동단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2000년에 와서야 학칙 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이다.

제12대 총여학생회에서는 학칙 제정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 학내 여성운동 자치단체와 단위 학생회 및 반성폭력 운동에 관심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이하 연성뿌연)'을 제안하여 활동하였다. 2003년에도 총여학생회의 제안으로 제 3기 연성뿌연이 구성,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각 단대 학생회와 여성자치단체 그리고 그 외 반성폭력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모여 테이블을 꾸려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과연 현재 연성뿌연에 참여하는 각 단위들이 스스로를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온전히 자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연성뿌연 자리에 모이는 이들이 진정 반성폭력 운동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주체'들인지, 의심스러운 때가 한두번이 아닌 것이다. 얼마 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자리에서 벌어진 총학생회와의 '실랑이'는 이러한 우리의 우려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연성뿌연의 이름으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자는 제안에 "예전에는 총여학생회에서 공짜로 해 주더니 이제는 왜 단과대에게 부담을 넘기느냐"는 이의가 제기된 것이다.

- 3) 당시 연대회의에 참가했던 단위는 제12대 총여학생회, 제21대 동아리 연합회, 제30대 법과대 학생회,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법과대 성연구 모임 '동그래지는 온쪽이',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옴', 여성전문문헌 '두입술'이었다.
- 4) 2000년 반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타 주체들이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거의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이 총여학생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 총여학생회는 중운위를 불신임하였다. 이런 사건을 겪은 후라 2001년에는 연성뿌연의 구성이 힘들었다. 제 2기 연성뿌연은 2002년에 구성되었다.

올해 연성뿌연에서는 2월의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에 대비하여 학내에서 일
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들을 짙막한 에피소드로 엮은 영상물을 만들었다.
또한 지난 1월 확대운영위원회 자리에서 통과된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안의 전문을
담은 내규 포스터를 만들어 새터때 각 방마다 부착하기로 합의하였다. 물론 이 사업들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여학생회가 주체적인 역할을 맡았음은 사실이다. 영상물의 기
획과 촬영, 편집 과정의 대부분을 총여학생회에서 담당하였고 내규 포스터 역시 총여학
생회에서 각 단대 학생회에 연락해 배부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엄연히 '연성뿌연'
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이었지, 결코 총여학생회 단독으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처
리한 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영상물과 포스터에는 '제15대 총여학생회' 대신 '연세 성
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라는 명칭이 분/명/히 들어갔으며 연성뿌연에 참여하는 각 단
대의 회장단과 여성주체들이 영상물에도 주·조연으로 출연하였다.

내규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규의 개정을 제안하고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은 총여
학생회였지만 개정안을 인준한 이들은 확운위 자리에 모였던 각 과/반회장들과 단과대
회장단이었다. 내규를 일방적으로 주어진 규칙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모두가 함
께 만들고 지키기로 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
단 '내규는 총여가 만들어와서 안겨주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내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끔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총여학생회에서는 인준 전 간단하게나마 간담회 시간을 가
짐으로써 내규의 내용과 내규에 반영된 학내 문화의 비판 지점을 확운위원들과 공유하
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돈없는' 학생회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왜 단과대에게 부
담을 넘기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연성뿌연 테이블에 매년 참가하고 있는 주체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예전에는 총여학생회에서 공짜로 해 주더니..."라는 말이 가진 문
제점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연성뿌연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 의식과
책임 의식을 공유하려고 노력해 온 과정들을 떠올려 본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때 직접 비대위에
들어간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해야만 하며 연성뿌연 테이블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당당한 '주체'마저도 반성폭력 운동은 당연히 '총여학생회의 일'로 생각하고 있
는 것이다-그렇다면 도대체 연성뿌연 자리에는 왜 참여한단 말인가?! 소속 단위를 대
표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회의에 불참했을 때 '왜 오지 않았냐'는 비난을 받
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소속 단위의 대표자인데,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관심 표명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고려 때문에? 회의 시작 시간 5분 전부
터 각 학생회실에 꼭 돌리는, "여기 총여학생회인데요, 오늘 연성뿌연 회의에 회장님과
여성 주체분 참석하시죠?"라는 전화 때문에?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대부분이 '성폭력 없는 연세'를
외치고 있으며 일반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문제 의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여성운동단위들에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고
민과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 그들이 학내의 모든 성폭력들을 떠맡는다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사실, 성폭력에 대해 비교적 높은 감수성이나 치열하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보여주
고 있지 않은-또는 못한-여러 학생 운동 단위들을 볼 때, 이들에게 함께 반성폭력 운
동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우려가 드는 것은 사실이다. 예
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성운동을 부문 운동의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하며, 솔직히 '잘
모르고' '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이다. 최근 우리는 한총련의
'반디새내기' 사태를 통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가슴아픈 사건을 또한번 경
험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총여학생회 몫'이라는 공식이 언제까지나 통
용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학내의 모든 성폭력 사
건들을 '총여학생회(혹은 여성운동단위들)'의 힘으로 모두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것 역시
당연한 사실 아닌가.

이런 까닭에, 우리는 또다시 답답해지고 만다. 과연 학내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는, 누
가 되어야 하는가. 반성폭력 운동은 결국, '총여학생회'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는 모든
성폭력
반대한다

III 관악여성모임연대 편~

대학 내에서 독자적인 여성운동단위로써 운동을 한다는 것은?(관악의 사례)

독자적인 여성운동단위에 대한 고민: 여성운동 어떻게 할까?

90년대 중반,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 - 이른바 '영 페미니스트'들의 새로운 여성주의 물결은 비록 작은 흐름이기는 했으나,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전면으로 내건 여성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권위적인 정권과 갈등을 빚는 제 3세계 국가의 특성상,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와 맞물려 여성운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한국 여성운동 역시 80년대에는 진보운동진영과 '함께' 하다가 점차 분리되었으며, 90년대에 비로소 성폭력과 성매매 등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를 환기했다.

그러나 의제가 섹슈얼리티로 확장되었다고 해서 문제제기의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초성이 강력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이 그나마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혹은 다양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이 '피해'를 봉합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아내폭력을 생각해 보라!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남편의 보복 때문에 가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성이 존재한다) '건전한 가족'과 '양성평등', '제도적 변화'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편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경우 9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여대생, 여성문화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그 이전보다 자의식이 강한 여성집단을 대표한다. 즉 학내 여성운동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보가 그나마 가능한 세대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을 고민하면서, '여성주의자'로서 자신을 정체화한 과정과 그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의 여성운동이 포괄하지 못한 영역으로 나서게 된다.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반성폭력을 위한 학칙 및 규약의 제도와, 여성을 위한 공간 확보, 문화제를 통한 일상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한 학내 여성운동은 여성노동과 성매매, 여성문화 및 언론으로 의제를 확장하였으며 여타 운동권의 가부장적 운동과 '분리해서' 그들의 운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비록 본 바 없지만(“”) 당시 학생운동이 축소되고 있었던 지형과 신세대론으로 대표되는 대학문화의 지형 속에서 여성운동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2003년을 맞이한 지금은 90년대 중반과는 많이 다르다.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의 변화, 학생운동의 축소 속에서 여성운동 역시 그 규모나 파급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한편 '페미니즘'이 점차 대중화되어 많은 강좌에서 끼워 넣기 식으로 '**과 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일부 남성들은 세련된 마초 되기를 터득했다.

사실 시대의 변화와 활동의 축소를 운동의 쇠퇴 이유로 언급하는 것은, 정답인 동시에 생산적이지 못하다 -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학내 여성운동의 역사를 여는 글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본 이유는,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온 학내 여성주의자들이 어디에 서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를 맥락적으로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반성폭력이나 성매매, 군사주의 등 대사회적으로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전에 비해 운동이 정체화된 상황에서, 운동의 급진성을 어떻게 짚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여타 운동단위와 분리된 독자적인 여성운동단위. 여성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여성들의 현실에 기반하므로 특정한 여성운동조직이 정답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운동 내용이 아닌, 다양한 운동 방식 및 독자적으로 여성운동을 하면서 부딪치는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여성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볼까 한다.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용뿐만 아니라 활동 방식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어떻게 여성운동조직을 구성하는가, 다른 조직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운동을 함께 할 여성주의자들을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 등. 발제를 맡은 관악의 경우, '관악여성모임연대'라는 흔치 않은(“”) 조직형태를 가지고 운동을 해왔다.

연대체로서의 관악여성모임연대

92년(혹은 93년) 총여학생회가 해소되고, 이후 96년 관악여성모임연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의 관악여성모임연대(이하 관악여모 혹은 여모)에 이르게 되었다. 처음에 꾸려진 계기, 과정 등은 작년부터 여모활동을 같이 해 온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현재 관악여모에서 바라보는 "여성모임연대체"로서의 성격은 말 그대로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각 소모임, 개인들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이다. 참여하는 단위들은 보통 각 단대여성모임연대체, 여성주의 동아리, 각 단대, 총학 학생회 여성국 등이다. 그래서 관악여모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회의 때 각 단대모임들의 사람들이 와서(개인자격이나) 단위에서 일어난 일, 계획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팀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관악여모의 이름으로 전관악적으로 해야하는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 단대모임일을 어느 정도 접은 사람들 중심으로 사업진행을 한다. 그리고 매번 학기가 끝날 때마다 평가와 계획을 관악여모 연대단위 사람들이(모두는 아니고 몇몇) 같이 짜게 된다. 이렇게 조직을 구상했던 것은 중심/주변의 이분법을 없애고, 각 여성모임이나 여성주의자가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여모에 결합하는 단위들이 서로 소통을 활발히 하고,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 함께 관악여성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매혹적인 말인가? 정보의 독점이 없는 수평적인 연대체라니. 사실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단대들의 소모임 사람들이 나오고, 모였을 때 "그래, 우리 이거 한 번 해보자"라고 해서 각자 자발적으로 일을 나누어 맡고, 모두가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현실은 다르다.

먼저 개별 단위와 관악여모와 분리의 문제이다. 관악여모에 결합하는 단위는 유동적이다. 관악여모는 자치단위이기 때문에 각 단위의 자발성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회의에 함께 결합하지 않는 이상, 여모는 여모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굴러가고, 공동의 흐름을 만들기는 어려워진다. 꼭 공동의 흐름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도 그 단위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간에 다른 단위들에서 얻어갈 수 있는 팁들을 얻지 못함으로써 사업하나 꾸리려 할 때도 막막하거나, 혹은 단위운동이 잘되어서 그런 팁들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더 쓸 수 있는 "재활용"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버린다.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자발성"의 문제로 환원되기 때문에 단위가 여모에 결합을 하지 않으면 아쉽지만 손 쓸 도리는 없다.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여성운동단위들이 축소되면서, 활동이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여모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 때는 꽤 많은 단위들이 결합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나마 잘된다고 이야기되던 단위들도 보기 힘들어졌다. 보통 '기지촌활동교양세미나'나, 농활·새터 '반성폭력 내규'같은 경우에는 단대 모임들에서 주로 담당을 했는데, 단대 자체에서 꾸리기가 어려워지자 여모 차원에서 해야하기도 했고, 따라서 이전에는 단위에서 했던 일들을 여모가 맡게 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굳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성관련이슈들에 대해서도 단대모임들에서는 꼭 '해야할 일'(소위 달력사업)을 해놓고 나면 더 이상 할 여력이 없어져 여모에서 그런 일들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여모 활동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세 번째 문제는 앞서 말한 문제들과 연관이 된다. 연대단위와 여모의 분리, 여모 독자 활동의 필요성 때문에 단순한 네트워크와는 다른 모양새로 여모는 굴러가게 된다. 각자 단위활동도 바쁘고 바쁜 연대단위사람들에게 또 다른 더 많은 활동을 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시급하게 논의해야하는 사안에 있어서 유동적인 연대단위들 모두에게 연락하고 모아서 회의할 수도 없는 등등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여모일만 전담하는 사람들-운영위원회(통칭 집행부)-을 두었다. 처음에 "수평적 연대체"로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던 소망은 잠시 접은 상태이다. 연대체라고 해서 뭔가 총여나 여위와는 다른 모습일 거라고 많이들 상상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굴러가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 새내기맞이 사업이나 선거가 없는 게 다른 정도일 것이다. 새내기맞이사업은 99,00년정도까지 여모에서 무엇을 제작하여 뿌린 흔적은 있지만, 이제 보통 역광되는 단대모임들에서 주로 한다. 그리고 총학과 연계해서 환영제나 새내기책길라잡이를 하는 정도?

네 번째는 대학본부와 아무 상관없는 자치단위이기 때문에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아 매우 자유롭긴 하지만, 재정이 너무 척박하여 사업 하나 꾸릴 때마다 각 학생회마다 예산신청에 목을 매고, 혹여 기획사라도 못 잡는 경우에는 심지어 방을 빼기도 했다고 한다. 그만큼 돈이 없어서 선전, 홍보나 뽀대나는 행사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선거로 인준받지도 않고 정식 단위도 아니라 대학본부를 상대로 해야하는 일일 경우에는 우리 존재 자체를 남들시키기 어렵다. 한 예로 정운찬 총장의 "신교수 사건" 망언 때에도 면담 하나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연대체라는 형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너무 짝여있는 일들, 새로 생기는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총여로 전환한다는 것과 같은 일은 큰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일정들에 치여 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심정이랄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여성모임연대로서 이루었던 성과들을 믿고,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 연대체로서의 틀이 훨씬더 우리에게 유용할 것 같기 때문이다. 더불어 처음에 연대체를 만들었던 정치적인 이유들에 크게 공감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실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보고 싶기도 해서이다.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할 때에도, 각단대별로 자치규약, 학생회칙 제정등 다양한 움직임들을 만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긴 시간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학칙제정운동이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원 사건, 정총장 망언 사건 등에서도 각단대모임들에서 다 열심히 부지런히 자보를 붙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악의 반성폭력 운동이 크게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00년에 페미니즘 문화제를 각단대별로, 여모관을 그 총화로서 가을 한 주동안 전관악을 여성주의로 가득 채웠던 경험들은 연대체로서 여모가 가지는 장점일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과 힘든 점들이 있지만, 연대체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각자 다른 방식(비슷한 활동방식이지만~)으로 활동하는 분들과 이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노력했는지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독자적 여성운동 단위와 각급 학생회와의 관계

사실상 오늘날의 학생회들이 예전의 정치성과 활동력, 학생사회에 대한 장악력 등을 현저하게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회라는 공간 혹은 조직은 학내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관악처럼, 때때 적어도 백여 개 이상의 과/반 학생회들이 건설되고, 아직까지도 단대와 총학생회 선거에서 치열한 자리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저마다 모습도 각양각색인 학생회들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타협해야하며 지내야하는 것이 여성운동단위들이 처한 현실이다.

여운단위가 쉽게 학생회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 고도로 정치화된 운동조직이면서도 동시에 학생사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자치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들은, 일반 학생들 개개인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대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자치단위들에게 필요한 자금과 장비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관악여모가 갖가지 학생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노하우와 고민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여성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고자 하지도 않는 학생회

우리는, 이들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 - -; 말로 되지도 않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학생회와 같은 공간- 자치단위 -에 있어야 할 경우, 그저 각자의 길을 조용히 갈 수만 있어도 다행이다. 그들은 수시로 켈타를 치기 때문에 - 별 효과는 없겠지만 - 그 때 그 때 입장자보라도 내야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떤 경우이건 최대한 일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2) 여성주의에 대해 아는 채 하는 학생회

여운단위에게 가장 골치 아픈 상대가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나름대로 여성주의에 대해 '학습'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과 학생회에 대한 정의에 따라 그 속에 여성주의를 끼워 맞추려 든다. 그들이 '학생사회를 아우르는' 학생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여성주의를 강제해야만 하지만, 그들은 또한 '고도의 정치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기 일췌이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학생회 운동의 범위 안에서 여성주의를 알고 활동하게 된 여성주의자들과의 관계이다. 그녀들은 학생회와 학생회 운동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믿으며, 그 안에서 여성주의를 펼쳐내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녀들을 기뻐하며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고민의 지점과 감수성들이 부딪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2)와 같은 경우에, 여운단위는 학생회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부딪치는 긴장관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3) 비학생정파조직 학생회

사실, 비학정조 학생회가 세워지는 경우보다는 학생회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특히 총학생회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비운동권 혹은 비학정조'임을 표명한 학생들이 등장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들은 특정한 정치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회의 실내용도 그때그때 어떤 모토로 나왔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현재 관악의 46대 총학생회의 경우 '준비된 비학정조 총학생회'라는 모토로 나름의 정치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학내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성주의와 여운단위들의 활동에 대해 너무나 감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학생회들보다 자치단위에 대해서 열려있긴 하지만,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일이 가르쳐줄 수도 없고 난감하다. 대신 여모에서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위에 대한 지원이 풍성할 것 같은 이번 학생회에 기대를 걸고 자금지원을 두둑하게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활동인자의 재생산

-공대여성위원회의 사례

공대여성위원회(이하 공대여위)는 01년 12월 정도부터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모임을 꾸려가기 시작했고 그 즈음부터 관악여모 회의에도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활동한지 1년이 갓 넘은 모임이다. 9x년도 세워졌던 공대 여위가 9x년 fine라는 페미니즘 동아리로 전환한 이후 그 맥이 끊겼고, 그때의 공대여위나 fine와는 아무 인연이 없었던 몇 명이 '공대 여성위원회'라는 이름만 빌려와 -그래도 00학번 이상에게는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었던 명칭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모임이었다.

지금의 공대여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활동인자의 재생산'이다. 관악에서도 인연(인문대 여성모임연대)이나 사연(사회대여성주의모임연대)처럼 과/반별 여성모임들의 연대체 형식을 띠고 활동하는 단위의 경우에는, 과/반모임에서 새내기를 받아 세미나 및 과/반 사업을 하고 인연 & 사연 회의에 각 과/반모임 대표(?)들이 나와 단대 차원의 사업을 꾸리는 형태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틀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대여위나 언니네(동아리연합회 여성운동모임)와 같은 경우에는 과/반별 혹은 동아리별 여성모임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체의 형식으로 굴러갈 수는 없다. (동연의 경우 그런 형태의 여성모임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결국 뜻있는 사람 몇 명이 모여 그 자체가 어느 정도 동아리적인 성격을 띠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새로운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혹은 공개적인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도 없고, (공대여위는 아직 가동록 동아리로서, 언니네는 동아리가 아닌 동연내 자치단위로서 안그래도 부족한 공간에서 방을 따낼 건덕지가 없다.) 커뮤니티를 할부로 공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여기 저기 포스터를 붙여 두고 거기 적힌 메일주소나 전화번호로 누군가 연락을 해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 이 경우 새내기들이 스스로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다른 단위(과/반이나 동아리, 혹은 학정조)에서 활동을 하다 뭔가 불만을 갖게 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어디 여성운동, 여성주의세미나 해 볼만한 곳 없을까' 두리번거리다 용기를 내어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결합해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보다는 세미나나 정보입수 정도를 기대하고 '한쪽 발만 슬쩍 걸치는 경우'도 많다. 사실 누군가 함께 하고 싶다고 할 때, 절반의 반가움과 함께 "이 사람은 '우리 사람' 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절반의 한숨 또한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혹은 활동을 접기 전까지는 모임이 어느 정도 굴러가다가, 사람이 나타나주지 않으면 그동안은 모임 형태를 유지하기만도 벅하다. 공대여위는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업을 꾸렸고 따라서 공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발언권을 확보했지만,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로 99,00학번이었고 활동을 어느 정도 정리함으로써 해서 당장 올해는 어떻게 굴러갈 수 있을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함께 활동할 사람들을 받을 수 있을지, 1년 혹은 한 학기가 지날 때마다 사람 없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정말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다. 그리고 꼭!

해답을 찾고 싶다.

단위 활동으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포지션의 여성주의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들어가며

잠깐 관악에서 내가 아는 어떤 여성주의자들에 대해 곰곰 생각해본다. 친구이기도 하고, 그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는 사이이기도 하고, 이름과 얼굴과 그 사람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간 알고있기만하기도 하는, 단위에서 활동을 한다기 보다,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여성주의적인 실천들을 하는 사람들. 몇몇이 머리를 스쳐간다. 하지만 지금 쓰려는 글은 딱히 지금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이 몇몇 사람들에 대한 글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대학내에서의 여성운동에 있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연극과 음악으로 자신의 고민을 담아내려하는 친구 S, 미술을 통한 다양한 실험으로 세상과 싸우는 그녀 K...와 같이 항상 나에게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멋진 사람들, 그리고 관악여모 활동가, 과/반 단위 여성주의 소모임 혹은 학회의 구성원들, 단과대학 여운단위 연대체 인자들, 각급 학생회 여성국 인자(이 경우 여성주의자로서 여성국인자라기 보다, 그냥 그 자리에 자리 채우려고 있을 뿐인 사람은 제외하기로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황당한 경우를 하도 많이 겪고 무수히 뒷통수를 얻어 맞은지라.)들.....등등..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라 비슷한 지반을 갖는 달은물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각자의 구체적인 고민들과 활동 방식이 달라 아주 다른 사람들이기도 한 이들이다.

여성운동 단위 인자들의 축소 재생산 그리고 또 다른 여성주의자들

분명한 것은, 하나로 압축시켜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로 인해 여운단위가 축소재생산을 거듭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일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여운단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다른 운동 단위들이 여운단위보다 더 낮거나 못한 상황인 것도 아니다. (일례로, 학생회의 틀 거리가 거의 소멸한 단위에서 여성주의 소모임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학생회의 방해받지 않고!- 경우도 있고, 그나마 학생회라는 물질적 기반이 없으면 여성주의의 '여' 자도 못꺼내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어찌되었든, 대학이라는 공간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만은 경험적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모습을 단지 '파편화' 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뭉뚱그려진 시대의 요구 속에서 묻혀져왔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차츰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찌면 (물론,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일테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위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인자들이 줄어드는 것과는 별개로, 스스로 여성주의자라고 정체화하며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활동들을 학내외에 걸쳐 매우 의욕적으로 펼쳐내고 있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한 여성주의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과 여성주의의 고민을 긴밀히 엮어 자신의 활동들을 만들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발들이 들릴 수 있는 통로를 열기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다. 소위 활동가로서는 정체화하지 않지만, 나름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이들은 단위의 활동들에 결코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단위에서 어떤 활동이 기획되고 집행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긴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포지션의 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서로가 고립되지 않을 수 있을까? 단위 활동가들은 이러한 관계 맺음을 고민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 그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것, 좀 더 많은 경로로 그녀들의 활동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것이 우선은 기본이 아닐까? 사실 여운단위의 활동이 아무리 일상에 친착한 문제의식들을 풀어내는 활동들을 해 나간다 해도 실질적으로 단위가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의식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사건들과는 별도로 때로는 박힌 일정에 치여, 해 왔던 것들 이외의 부분에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다. 제각각의 화두를 가지면서도 서로 연결고리들을 가지며 단단히 엮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정형화된 운동의 틀로부터 자유로워지되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나가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이 고민할 문제다. 섬세하게 상황 파악을 해야하는 문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으면 한다.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여학생회를 소개합니다~

Scrach에서 Tele-vitamin으로 날다

1. 까만 껍질을 벗겨

2001년 너무나도 우울했던 안성의 겨울, 축적되어온 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들 그리고 그것들의 무감각 일상화. 덩달아 방관했던 자, 여성운동의 흐름을 매년 어떠한 맥락 없이 맹목적으로 이끌어왔던, 총학생회의 사업들을 도와주는 산하 마냥 던져주는 고기만 열심히 먹던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문화의 주역이었던 소모임들이 점차 사라지던 그 겨울, 페미니즘학회 “성벽무너뜨리기”의 몇몇 여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봄,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

그녀들이 바로

전복의 상상력, 금지의 선을 지우다 “스크래치 총여학생회”



-까만 껍질이 보여, 잘 다듬어지지 않은 막대로 누가
쫄쫄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았어. 우리가 만든
막대로 긁어 보자. 부스럼 생기지 않게
조심히 천천히 긁어볼래.
그 밑의 아름다운 색깔들을 보고 싶어.
저 까만 껍질을 다 벗겨 놓고 싶어.

스크래치의 이름으로 학생회에 도전한 그녀들의 고백이 시작된다.

2. 스크래치의 고백

늘 무시되고 묵인되는 성 억압·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다양한 각도로 제시하겠다는 목표. 하지만 학생회활동을 처음 해보는 우리 관성적인 학생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의 위계질서부터 바꿀 수 있는 대안적 모습을 그려 보아야했어. 수직적인 국별 체계에서 수평적인 위원회 체계로, 무조건 설명화 되는 것에서 자신이 불리우고 싶은 예명으로, 학생회의 수직적인 업무처리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그렸던거

죠. 그 이후 이 캠퍼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지금까지 문제 되어왔던 그래서 묵인되어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한 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 2002년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학기가 시작되어서 학우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야 할 것들, 바뀌어야 할 것들을 어떠한 방법과 시각으로 하느냐를 더 고민하기 위해 내부 기초세미나를 진행하였죠. 성폭력개념성폭력 사건 해결의 올바른 시각 및 자세, 성매매 등 학교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편견과 오해들이 싸여있는 문제들을 중점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으앗!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개강도 하기 전에, 아직 교양을 마치기 전에 성폭력사건이 접수되었던 거예요.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잘 몰랐지요. 이전부터 연대를 하던 사회단체나 타 학교 여성주의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내부의 반성폭력 자치위원회와 성폭력사건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계속 성폭력상담 강사에게 교양도 듣고 학교 행정 안에 있는 성윤리위원회라는 곳과 연계하여 사건을 해결을 하려했어. 그때부터 문제들은 더 부각되었죠. 전혀 성폭력사건 시 준비되어있는 어떠한 절차조차 없었던 터여서 개선해나가고 개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거죠. 그러한 난관 속에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때 적극적으로 성폭력박멸을 위한 영상물 제작을 하여 홍보하고 섹스, 연애, 임신, 피임, 성폭력, 여성문화 등의 내용을 실은 다이어리식 여성수첩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어. 개강 후 피해자의 동의로 학내에 성폭력사건을 공론화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에도 노력을 기했지만 처음으로 공론화되는 성폭력사건이라 나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였어. 그 사이 새내기 교양 학교를 통해 다시 성교육의 재정립과 성폭력의 피해자중심의 해결에 대한 강연회를 열고 자료집을 발간하였죠. 또한 아직 성폭력사건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예비역중심의 2차 성폭력이 일어나 방식적인 측면에서 좀더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편견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는 문화제를 기획하였답니다. 한마디로 학내에서 한번도 그렇게 공론화되지 못한 성폭력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문화제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3일동안 성억압 관련 심야영화상영과 주점, 주변관 등을 진행하고 단대 여성국장들의 결의 문낭송과 퍼포먼스, 공연 위주의 문화관을 진행하였죠.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없이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일상 속의 여학우들의 공감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반감을 불러 일으켰죠. 그 이후 기숙사관행수칙에서의 성차별에 입각한 폐문시간과 점호제도에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기숙사관생들과 한판 게릴라집회도 가지고 다시 방학이 찾아올 때쯤 기지촌활동 홍보를 하였어.

3. 스크래치만의 소리, 서로에게 폭력을

많은 일을 한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과 공약을 해결하려했던 것들이 문제로 들어나기 시작했죠. 그녀들은 9월이 되고 10월이 되면서 일로 인한 무한한 피로감과 허무함은 더해만 갔죠. 뻔뻔하게 모든 일을 해결하려하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혹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요한 너와 나를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학기의 사업들이나 여성운

동방향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점차 줄어들고 가고 하고자하는 원래의 목표들은 이리저리 부스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뭔가 이룬 것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 하나 하나의 관계는 등등 뚝뚝 끊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그녀들이 원한 것이었을까요? 너무나 원칙 원칙을 이야기하며 일에만 치중해왔던, 그 일을 하며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에게 더욱 애정을 느끼며 지낸 1년이 아니었던, 그래서 이 안성캠퍼스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운동을 학생회로써 혹은 소모임으로써 이끌어갈 소망들은 사라져버린. 그녀들 중 몇몇은 졸업을 하고 남은 몇몇은 고민해야했어요. 각자 여성주의 소모임이나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했고 하지만 지원 받고 보장받을 어떠한 학내 지원단체도 없고, 막연한 상태에서 다시 안성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학교를 둘러보았어요. 안타까운 현실만이 눈에 보이는데 오직 단 하나뿐인 페미니즘 학회와 이반모임 레인보우 피쉬만이 방긋 웃네요.

좀더 현실을 돌아보았죠. 하얀 파도만이 밀려왔어요. 스크래치가 이리저리 흠리고 간 흔적만이 군데군데 있고 그 땀방울 흘렸던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다시...다시 거기서 한발 짝 더 들어가 그때 놓쳤던 것들을 해볼까 싶었어요. 이 학교에서 이뤄진 여성운동이 알맞은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 흐름이 다시 멈춘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존재해 있는 소모임도, 그녀들의 꿈도 사라질 것만 같았죠. 이 학교에 맞는, 이 시기에 맞는 그리고 홀트러짐 없는 다양한 눈으로 다시 여성의 문제를 전하고 싶었어요. 스크래치가 여성의 일상적인 문제를 교조적으로 풀어내려고 했던 부분 그래서 농친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고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을 잡아 여성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여성주의 학생회를 이야기했지만 막상 사업에 치여서 오히려 과소적으로 이끌어왔던 부분을 없앨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여학우들의 일상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 그녀들이 쉽게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 볼까? 일상을 움직이는 교류의 에너지, 텔레비타민으로 시작하자고 그녀들은 마음을 모았고 함께 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텔레비타민 총여학생회가 있게 되었죠.

4. 일상에서부터 움직임이다

일상을 움직이는 교류의 에너지 "텔레비타민 총여학생회"



일상을 움직이는 교류의 에너지
텔레비타민

-여학우들의 일상에서 공감되지 못한 문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여학우들 하나 하나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그녀들에게 힘이 되어줄 비타민을 전해주고 싶어. 텔레비타민, 우리는 우리를 잃지 않는 서로의 에너지가 되어야해. 이제 시작인 걸.

그녀들은 이제 조금 다른 길에서 같은 마음으로 출발한다.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반침 없이 문제 제기하고 해결할 순 없다는 걸 이 안성에서 배웠습니다. 강연회나 문화제를 열어도 10명 남짓 오는 이 안성교정. 정보는 늘 한발 뒤. 지역적 조건을 생각지 않고 여성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인식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곳에서 내지를 순 없음을 깨달았답니다. 방식의 문제였죠. 쉽지 않은 의식의 변화 요구를 잘 풀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생각했어요.

Vitamin 1★ 일상 어느 곳에서도 여성의 이야기를 꾸준히 볼 수 있게

▷여성뉴스 스티키조사 자보, 화장실 통신을 통한 점차적인 관심 이끌어내기

Vitamin 2★ 불편한 하나 하나부터 바뀌가기

▷생리통출석협조의뢰서(학교 보건소를 통한 발급), 가로등 설치, 각 단대 특성에 맞는 여학생휴게실 대변신, 생리대자판기 설치

Vitamin 3★ 그들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라

▷웹진게시, 단대 여성국을 건설하고 교류하기, 학생회실 내부여학생휴게실오픈, 여성주의 소모임 공간 및 금전적 지원보장하기, 안성학우 안성맞춤 텔레비타민잡지 발간, 관성적 문화제 탈피한 참여관 구상

Vitamin 4★ 학교당국 행정에 끊임없는 요구와 대안 제시하기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구 강화, 성폭력학칙개정, 성폭력예방이 아닌 박멸을 위한 홍보요구, 대외 반성폭력기구와의 네트워크건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상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궁금궁금~ 그만큼 매 순간 함께 하는 그녀들 서로서로 에너지가 되어 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해요. 3.8 여성의 날을 계기로 다른 학교에서 여성주의 소모임, 학생회를 하시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잡을 얻어갔으면 해요. 우리들의 네트워크를 위해~★ 모자란 부분 있으면 꼭 +알과 되주실거죠?

떠리리리 콜~☆031-670-4503/011-9305-3245(옥스)

일상을 움직이는 교류의 에너지,

Tele-Vitamin 총여학생회

연세대학교 여성운동 활동 정리

	성폭력	성매매	여성노동
00	▼ 국가안전 위협 판결후 사이버 성폭력/테러 발생 ▼ 연세성폭력추리팀기연대회의 구성 ▼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 -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 - 새터 내규 자료집 발행 ▼ 반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 참여 - 학칙제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학칙 제정 공청회(6.1)	▼ CAMP 참가 - 열린 세미나 진행, 오피나와 회의 참가 ▼ 여름기활학교(7.24~26)	▼ 국가안전 위협 결함(1월) ▼ 메이데이 기획단 여/활 참가
01	▼ 연성추언 구성 실패 ▼ 반성폭력 백서 발간 실패 ▼ 비온드 자치규약자료집 '장년의 미친 년 되기'	▼ 여름기활	▼ 3.8 여성의 날 기획자보 - 모성보호, 호주제 ▼ 모성보호 관련 입장자보(5월)
02	▼ 연성추언 구성 ▼ 새터 반성폭력 내규 교양 - 하하호호 새터 내규 자료집 발행 - '우리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이야기' 자료집 발행 ▼ 교수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참가 ▼ 반성폭력 백서 발간 실패 ▼ 대안적인 인고제를 고민하는 연세인 모임 - 응원가 마츠엔 반대, 남성 중심적인 응원문화 문제제기 - 호루라기 불기	▼ 여름기활	▼ 대학내 여성 노동 태도론회 참여 ▼ 여성 노동권 쟁취를 위한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 댕돌굴리기 참여 ▼ 메이데이 기획단 여/활 참여 ▼ 여/활 연세 활동단 구성 - '5월을 즐겁게 시작하는 101가지 방법' 자료집 ▼ 여학우 취업대란 ▼ 여성노동자 영상보고서 '뽕꽃양' 학내 초청 상영
03	▼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1.28) ▼ 연성추언 구성 - 새터 내규 영상물 제작(2.18) - 내규 포스터 제작 ▼ 사회대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비온드) ▼ 반성폭력 백서 발행(예정)	▼ 2003 겨울기활학교(12.27~1.18) - 성매매 세미나 : 성매매, 성매매 합법화론,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 성매매 관련 자료 수집/분류 - 성매매 워크샵 개최	▼ [3.8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락과 여성(3/3) ▼ 여성노동학교(4월 예정)

관악여성모임 연대 활동 정리

	여성노동	반성폭력	반성매매
99		4월 '바/로/지/금'행동단(선전, 공청회-자료집, 결의서명-성폭력 해방공간선언운동, 결의대회 및 총화) 공대 반성폭력학생회칙제정	
00	4월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행동단 SISTER-ACT	3월 성폭력학칙제정 운동(성폭력학칙의 민주적이고 조속한 제정, 선고수 퇴진-"지집다, 성폭력 뽕개버리자", Be Actor) 11월 학칙통과, 상단소개소	3월 열린 세미나 6월 관악기활학교
01	4월 여성노동워크샵 5월 모성보호법 무쟁 연대활동	2월 단 대단위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 9월 법대 성폭력 사건 실명공개사과 논쟁 이원 사건 논쟁 10월 반성폭력토론회 1, 2(피해자중심주의, 자치적 해결과비대위/ 피해자 정제성과 가해자 책임일치) 성폭력피해자명예회복을 위한 장터 12월 대학내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1,2(학내성폭력해결을위한상단소의올바른방향모색/ 학내성폭력의자치적해결)	7월 관악 기활학교 12월 새움터 후원 일인호프
02	1월 인터넷타탈호텔 룸메이트 연대무쟁, 댕돌굴리기 참여 3월 3.8세계여성의 날(자료집, 자보진, 사진전) 4월 여/활 기획단 참여, 여성이 일/한/다 여/성/이 일한다 2002관악메이데이 활동단 여/활(자보, 리플렛, 개틀라선전전, 문화제) 토론회:여성노동, 나머지공부(사회대학생회 공동주최) "뽕꽃양"상영, 자보 올림대 제구성	1월 자치규약 새로쓰기(파일로 배포) 2월 반성폭력주제 교양학교(총학과 함께) 5월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결함 반성폭력관련 선전(pc) 반성폭력 자치규약(학생회칙) 개정/제개정-사연, 선언 자연대 반성폭력학생회칙 제정운동-"뽕개버선" 동아리 성폭력사례집-동연언니네 정충장 명언, 자보, 면담실제.	3월 성매매 기획자보(4회) 4월 4.19법박길 반성매매 부스 6월 기획 교사 세미나 (단위별로 기활교양세미나 진행)

*새터, 농활의 반성폭력 내규는 단대별로 진행. 지속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단대별로 성학교 간헐적으로 지속.

*CAMP, 새움터기활학교 꾸준히 참여.

*단대별로 "여학생새터" 혹은 "여학생환영제" 진행.

	문화제	여학생복지	대제	기타
99	제 2회 관악 페미니즘문화제 "미친년, 김나가다" 사회대 페미니즘문화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카피레프트 선거연대"참여(관 악여모) 18대 인문대학생회선거 그림 자선본 "성역과괴"
00	제 3회 관악 페미니즘문화제 "칠거리락" 인문대 페미니즘문화제 "맛짱뜨 기" 사회대 페미니즘문화제 "home/sick" 자연대 페미니즘문화제 "누가 핸디를 모함했나" 법대 페미니즘문화제 "윌리스, '아니'라고말하다" 사범대 페미니즘문화제 "있다! 너도 목소리를 내봐"			군가산계 투쟁 여학생인터넷사업(자료집, 선 전전, 강연회) 페미니즘여류학교 사회대여학생자치회->사회대 여성모임연대
01	제 4회 관악 페미니즘 문화제 "아주 특별한 용기" 사회대 페미니즘문화제"선수, 작 업 들어가다" 자연대 페미니즘문화제 "이틀전 에 죽은 그녀와의 세팅"	3월 생리대자 판기확대실치	법대 <불복거울>발간	관악 철쭉아가씨 반대집회 단위프로젝트, 만나서 두런두 런 만두밧기(여성주의사업팀제 공, 자료집)
02	제5회 관악 페미니즘문화제 "내 여자친구 이야기" 인문대 페미니즘문화제 "그녀는 즐겁다" (여성주의한당 행사의 일부로 진행) 사회대 페미니즘 '반성폭력'문화 제 "눈물예닐개물달아" 자연대 페미니즘문화제 "다시"		휴이쌍스창간 제1호 "공간과 여성" 사이사이 1호 "미인대회, 시선폭력" 제2호 "여자친구" 제3호 "폭력, 사이버건드 리기"	여학생환영제 "만나서 즐거운 girl" 관악 철쭉아가씨 반대집회 대동계 마초콘테스트 여성주의미술전시회"피카소 너 만그리나"(동연연니네) 제 21대 인문대학생회선거 인 문대여성모임연대 그림자선본 "아궁이"
03			휴이쌍스 제 4호 발간예정	12월 여모 오픈세미나(자매애 에 대한 몇가지 질문/ 문학과 여성/과학기술과 젠더/ 국가와 여성) 3월 강연회 (반전/ 성매매)-예 정 4월 거북이시스템지상영회(자 료집, 자보)-예정

*여휴 사업도 단대별로 진행

*선거시기 여성정책간담회나 공개질문, 정책제안 자보로 개입(사회대, 공대, 동연, 관악여모)

색다른 어울림 3.8 무지개 시위 참여를 제안하며

로즈메리

대학에서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한 나. 여성의 '차이'있는 경험을 이야기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정체성에 근거하게 된다. 다들 단위에서 피터지게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 여성운동단위를 지키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풀어내기 위해, 남성들을 붙잡고 싸우는 건득한 운동의 역사. 외부와의 싸움은 내부의 결속을 단단하게 만든다. 작년 여성연대 한/관만 하더라도, 나는 다른 학교 활동가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들떴다.

하지만, 그 반가움은 금세 차이에 대한 고민으로 변했다. 남성에 대한 대립항으로, '여성'이 모두 묶일 수는 없다. 현실 사회에서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다르고 달라서, 결코 분해할 수 없는 몇 겹의 억압들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 여성이기에 눈빛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 기존의 인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역시 존재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함께 연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와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다르듯이, 동등한 위치에서 다르다면 위대한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포괄하면 된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의 사회는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를 억압한다. 성별, 성적정체성, 장애, 나이 등에 기반한 '다름'은 권력 차를 의미하며, 지난한 투쟁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3월 8일, 여성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결코 속하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이 성매매 되고, 아내들은 10분에 1명 꼴로 구타를 당하고, 성폭력은 일상이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며, 여성들은 전쟁의 희생양이 된다. 한편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일상적 전쟁과 다를 바 없다. 이성애를 강요하는 사회는 성소수자 여성들을 다른 성적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침묵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한다.

여성 안팎으로 갈라지는 수많은 소수자 집단들. 소수자이기에, 그녀들이 처한 상황은 이야기되기 힘들다. 색다른 어울림 3.8 무지개 시위 참가를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함께 투쟁하고, 좀더 고민하자는 것. 소수자의 시선은, 그 단어가 내포하는 급진적

인 정치학 이상으로 많은 고민을 던진다. 소수자의 시선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함을 의미한다(성찰은 자신을 부정하거나 모멸감을 느끼는 과정 역시 포함한다). 또한 소수자의 시선이 된다는 것은 중심으로 편입한, 권위적이며, '다름'을 묵살하는 운동 방식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작은 목소리이면 어떠한가. 어차피 현실은 이 땅의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아주 천천히 바뀌는 법이니까. 3.8 무지개 시위에서 작지만 큰 목소리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꾸며 서로 많은 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기를

